신화로 만난 섬 제주와 일본 10년의 기억 제주서 나눈다

제주문화포럼 국제교류전
제주·일본 작가 39명 참여
어린이 전시와 심포지엄도
제주아트에선 작품 판매전

김미령의 '서천꽃밭'.

두 섬이 품은 신들의 세계가 제주 전시장에 펼쳐진다. 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이 올해로 여덟 번째 진행하는 일본·제주 신화교류전이다.

미술로 형상화한 신화전은 10년 전인 2009년 7월 일본 오사카에서 첫발을 뗐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와 일본을 오가며 국제미술교류전을 열어왔고 이번엔 제주에서 그 만남을 이어간다.

교류전은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란 부제를 달았다. 미술작품을 통해 신들이 펼쳐준 세상에서 삶을 꾸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들이 삶을 이어가던 경건한 자세와 생명세계에 대한 경외가 국경을 넘어 되살아난다.

제주에서는 고영만 김미령 김성란 김연숙 박금옥 박지혜 부상철 소희진 송창훈 홍진숙 등 20명이 평면·입체 작품을 출품한다. 일본에서는 코나다 이키, 김석출, 모리 시게오, 우에히라 수미에 등 제주문화포럼과 인연을 맺어온 19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기간에는 어린이 신화교류전도 나란히 개최된다.

전시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에 실시된다. 이튿날 오후 3시에는 제주국제교육원 4층 세미나실에서 '여신신화와 여성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마련돼 '일본 신화 중 여신'(코나다 이키, 일본제주신화교류회 대표), '여신신화의 유형과 현대적 의미'(하순애, 철학박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교류전과 연계해 10월 26~11월 1일에는 제주문화포럼이 운영하는 제주시 전농로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제주·일본 작가 20여명이 '아름다운 기억을 나누다'란 이름으로 작품 판매전을 갖는다. 문의 064)722-6914. 진선희기자

솔동산기록단이 붙잡은 '서귀포의 명동'

송산서귀마을회 주도로
근대역사문화 아카이브
책자 발간과 골목 탐방

그곳은 한때 '서귀포의 명동'으로 불렸다. 1980년대 중반엔 8500명까지 몰려 살았지만 어느 순간 모텔촌으로 변했고 밤이면 '유령도시'가 되어갔다. 아슴푸레해지는 도심의 기억을 붙잡은 이들이 있다. 서귀포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서귀포근대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펼친 송산서귀마을회(회장 김영호)다.

이번 1차 사업은 여행작가이자 전직 PD인 박정호, 사진가 이재정 등 전문가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솔동산기록단'이 맡았다. 쉰다리 봉사단체 김종현 등으로 자문단도 꾸렸다.

이들은 1870년부터 1950년까지 송산동 지역 근대 건축물과 관련된 인물 이야기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서귀심상보통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서귀포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던 윤세민(90), 서귀포 최초의 책방인 대원서점을 열었던 강서국의 후손 강길화(89) 선생 등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했다. '제주도편람'(1929), '제주도세요람'(1939) 등 공적 기록도 살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원도, 1948년 서귀포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서귀포 근대역사지도도 제작했다.

송산서귀마을회는 1차 사업을 마무리하며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귀포 옛 골목길 탐방을 벌인다. 윤세민 전 교장, 해설사로 활동하는 강은영 수필가가 '서귀포 근대시간 여행' 안내자로 나선다. 탐방 후엔 서귀진성에서 쉰다리 등 전통음료와 빙떡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 010-7179-322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31)

白首餘音을 읽다

김학선

어찌하다 버릇없이 앙탈을 부렸는지
치도곤을 안기는
할아버지 명아주 지팡이의 나무람이
가을 볕살에 흩어집니다.

서천에 기운 한 생애 속
구레나룻 쓸어내리는 한 서린 음송이
하늘에 매어둔 장자(長子) 불러들이고
보이지 않는 별 떠 있기를 기구하던
모진 세월들.

다시 돌아본들 짧은 영일은 아득하여
지친 눈빛에
천리 먼 저승 길 헤아리다
꼭꼭 눌러 쓴 여한의 흔적을
새로운 듯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이다. 석우(石友) 김경종(金景鍾, 1888~1962)의 '白首餘音(백수여음)'을 북제주문화원에서 백규상(白圭尙)의 번역으로 펴낸 것은 2006년이다. 석우는 노형동에서 태어나 구한말 이후 격동하는 세상의 간난을 한 몸으로 겪으며 사문의 쇠퇴를 한탄한 유림이다. 할아버지의 문재(文才)를 이어받은 시인이 '紗羅峯 詩篇(사라봉 시편)'을 펴낸 것도 2006년이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손자의 깊은 내면의 답변일까?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시인은 시 '민오름 편지'에서 석우의 부인인 여산 송씨(礪山宋氏)) 할머니를 이렇게 회상한다. '할머니는 불쏘시개를 얻기 위하여/ 솔바람 등에 업고/ 사랑의 솔잎 애써 모으실 때/ 어린 손주는/ 깍지 낀 채/ 먼 산만 바라다보았습니다.// 한 세상 숨이 찬 나날이/ 강물 되어 흘러간 사이/ 할머니는 아무런 기척이 없으시고/ 머리 희끗한 손주는/ 봉분의 잡풀 베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할아버지의 명아주 지팡이의 나무람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고백한다. 석우는 슬하에 창진 효진 한진과 영옥 정랑 5남매를 두었다. 그 중 창진(昌珍)이 4·3여파로 김천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白首餘音'에는 이승만에게 4·3의 진상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적어 보낸 장문의 편지글 '여이승만서 기축(與李承晩書 己丑)'과 성토문 '이승만성토문 경인(李承晩聲討文 庚寅)', 아들을 잃은 아픔을 토로하는 시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시인이 꾹꾹 눌러 쓴 여한의 흔적이 역사의 아픔인 4·3을 어루만지고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쪽지

연극 '두 영웅' 무료 공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이달 26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연극 '두 영웅'(연출 김성노)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400여년 전 한국의 고승 사명대사와 일본의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극단 동양레파토리가 2016년 원로 극작가 노경식의 등단 50년을 기념해 초연한 작품이다. 관람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064)710-7643.

제주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제주윈드오케스트라(지휘 임대흥)가 이달 27일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열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이날 공연에선 2019제주국제관악제에서 초연된 제주 홍정호의 '불로초를 찾아서(Finding the Tree of Life)', 토마스 도스의 '테라 미스티카', 아르투니안의 '트럼펫과 심포닉 밴드를 위한 콘체르토',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을 들려준다. 아르투니안의 협주곡은 대전시향 수석인 트럼펫터 임승구씨가 협연한다.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접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대극장과 소극장 정기대관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제주도와 산하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기획·초청공연 기간 등은 대관일에서 제외된다. 대관가능일과 제출서식은 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e메일로 접수가능하다. 도문화진흥원은 별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710-7632.

작은도서관 10주년 특집호

(사)제주도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장동훈)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소식지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특집호를 냈다.

이번 호는 '걸어온 길 10년, 돌아보다', '걸어갈 길 10년, 내다보다', '작은도서관, 큰 이야기' 등 지난 발자취와 미래비전, 소속 28개 작은도서관을 소개했다. 도서관 특색 프로그램 코너 '도서관, 즐기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담은 '사람, 책을 말하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추천도서인 '책이 주는 레시피'도 실었다.

눈먼 자 햄릿,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연극술사 수작 등 제작
양승한 주연의 '햄릿…'

제주가 고향인 '너, 돈끼호떼'의 배우 양승한이 주연을 맡은 연극 한 편이 제주 무대에 올려진다. 이달 24~25일 오후 7시30분, 26일 오후 3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만날 수 있는 '햄릿-더 블라인드'(각색·연출 하일호)다.

서울의 '연극술사 수작'과 '종이로 만든 배'가 제작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토대로 주인공 햄릿을 눈먼 자로 설정했다. 시력을 상실해 눈앞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죽음과 인간의 자아를 보다 가깝게 바라보는 '맹인' 햄릿이 등장한다. 그를 통해 인간의 욕망, 복수와 정의, 운명과 의지, 연극과 삶의 경계 같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며 관객을 청각의 세계, 마음 속 세계, 환상과 허구의 세계로 이끈다.

입장료는 중·고교생 1만5000원, 대학생 2만원, 일반 3만원이다. 플레이티켓 등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8181-6703. 진선희기자

http://marathon.ihalla.com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가슴 가득 완주라는 목표를 품고 힘찬 발걸음으로 다함께 출발!!"

제17회
The 17th Halla Marathon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2019.11.10 일 오전 9:00
조천운동장~월정리해안도로 방향 왕복
풀코스|하프코스|10km|5km

• 주 최 | 한라일보사, (사)제주감귤연합회(농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Mathon
EVENT!
해외 마라톤 초청 특전
일본 애플 마라톤 무료참가 기회
클럽동호회 20인이상 개별부스 제공
(사전 신청한 단체팀에 한함, 단 5km 제외)
클럽동호회 훈련비 지원
(풀, 하프, 10km 참가자 기준)

문의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사무국 T.064-750-2291

여성기업 DESIGN leader JEJU